

무주군 대중교통정책 우수

전북도 건설교통공무원 워크숍서 수상 영예 통학택시·행복택시·장애인 콜택시 지원 등 귀감

무주군이 2018년도 대중교통정책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18일 전북도로 부터 표창을 받았다.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18일 전북도로 베스트웨스턴 군산호텔에서 열린



무주군이 2018년도 대중교통정책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18일 베스트웨스턴 군산호텔에서 열린 시군 건설교통공무원 소통강화 워크숍에서 전북도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시상식에는 전라북도를 비롯한 14개 시·군 건설교통 분야 공무원 120여 명이 참석했으며, 무주군은 군민 교통편의 도모를 위해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대중교통운수업체 지원, 서비스 개선 등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정책 수행에 기여한 점 등을 높이 평가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무진장 수요 응답형 대중교통 도입사업 추진과 △통학택시·행복택시·장애인 콜택시 지원, △농어촌버스지원과 택시미터기 지원, 택시감사 보상 지원, 그리고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로 교통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한 것 등이 귀감이 됐다.

무주군 산업경제과 김기범 교통행정 팀장은 "주민안전과 편의를 도모하는데 최우선을 두고 교통행정 업무를 보고 있다"라며 "좋은 결실을 맺게 돼 기쁘고 앞으로도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정책이 마련되고 또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하천제방정비 최우수 기관 선정

하상 퇴적토사준설 및 지장수목 제거·수문 등 불법행위 단속

장수군은 전북도에서 주관하는 2018년도 하천제방정비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라북도 지방하천 462개소 2,917km를 대상으로 축제정비, 호안정비, 하천공작물정비 등 6개 분야 15개 지표로 상·하반기 2회 평가해 최우수와 우수기관을 선

정 기관표창과 유공공무원을 표창한다.

장수군은 효율적인 지방하천 유지관리를 위해 도비 보조 외 자체예산을 확보해 하상 퇴적토사준설 및 지장수목 적극 제거, 유실호안 위기전 보수, 가동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상시 가동이 가능하도록 최적 상태 유지, 수문 등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내실 있는 행정지도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점검 및 정비를 통해 쾌적한 하천환경을 유지하고 재해요인 사전 제거 등을 펼쳐 안전사고 깨끗한 하천환경 개선으로 살기좋은 청정장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무주서, 가림교차로~가옥교차로 구간 제한속도 하향 조정

잡은 교통사고 예방 위해

무주경찰서(서장 윤중섭)는 차량 통행량이 많고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국도 19호선 1.05km 구간에 대해서 제한속도를 80km/h에서 60km/h로 20km/h 하향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한속도 하향은, 3년간 30여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가림교차로(무주IC 앞 교차로)와 보행자 횡단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평촌마을을

포함하여 적상터널에서 가옥교차로 양방향 약 1.05km 구간으로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진행되었다.

무주경찰서 관계자는, 전북경찰청과 협의 후 3/4분기 무주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통해 도로교통공단의 자문을 받고 심의회 의결을 거쳐 도로관리청과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협의해왔으며, 12월 중 교통안전시설 설치가 되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윤중섭 서장은, "교통사고 예방에 있어서 교통 시설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며, "군민의 안전을 위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 시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가림교차로(적상→무주 방향)와 평촌마을 앞(무주→적상 방향)에 설치되어 있는 고정식 무인 과속단속 카메라는 제한속도 하향 조정 시행 후 약 3개월의 단속 유예기간을 거칠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귀농귀촌 사례집 진안과 사람을 '있다' 눈길

농사·관광 정보·행사 등 다양한 형식 구성

진안군 귀농귀촌인협의회가 진안군 귀농귀촌 정책 안내와 귀농귀촌인들의 소식을 공유하는 사례집 '있다'를 발간해 눈길을 끌고 있다.

'있다'는 지난해까지 흑백 단행본 형식의 귀농귀촌 사례집 '삼백오십'을 발간해 왔으나, 올해부터 '진안과 사람을 있다, 진안에 온 사람과 사람을 있다, 사람과 자연을 있다'는 의미로 사례집 제호를 '있다'로 변경해 발간하고 있다.

'있다'는 올 컬러 잡지 형식으로 계절마다 제작되고 있으며, 진안에 사는 사람들을 집필진으로 하고 있다. 진안의 역사, 귀농·귀촌 사례 및 사람, 농사 정보, 관광 정보, 군 행사, 일자리 정보 등을 인

터뷰, 만화, 에세이 등 다양한 형식으로 구성돼 제작되고 있다.

사례집은 진안에 관심이 있거나 귀농·귀촌희망자, 출향인들에게 생생한 진안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귀농·귀촌인의 다양한 사례와 적응이야기를 진솔하게 담아 공감을 얻고 있다.

'있다'는 진안군귀농귀촌인협의회 홈페이지(http://www.refamll.com/)에서 별도의 가입 없이 웹진으로 누구나 볼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도시민의 농촌유치를 활성화하고 이들이 귀농귀촌으로 이어져 지역에 활력이 넘칠 수 있도록 귀농귀촌 사례집을 포함한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매 아리

진안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기회의

진안군 진안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김흥기)는 18일 진안읍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4분기 정기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2018년도 사업실적 평가와 2019년 사업 계획 심의, 위원 정비 등 주요 사항들이 논의되었다.

진안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올해 한 해 동안 책 한권, 피자 한판 행복한 우리동네, 명절맞이 복지 이벤트, 독거노인 결연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펼쳐왔다.

특히 지역주민, 기관, 단체 등이 참여하여 지역자원이 연계될 수 있는 나눔과 돌봄의 토대를 마련하였고 내년에는 지역사회조사를 통해 욕구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흥기 위원장은 "연말연시를 맞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좀 더 관심을 갖고 우리 협의체가 다양한 사업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노력해 나눔으로 행복한 동네를 만들어 나가자"며 각계각층의 동참을 호소했다.

한편 진안읍은 취약계층 지원과 동네 복지 정착을 위하여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사례관리, 각종 지원 및 연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토지정보업무 추진 우수기관

예산확보 및 경계정비사업 추진 등 높은 점수

진안군은 18일 전북도가 주관한 2018년도 토지정보 업무추진 실적평가 시상식에서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토지정보 업무추진 실적평가는 전북도에서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15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토지관리·지적공간정보·지적재조사·도로명주소 분야에 대해 서면평가와 검증평가를 거쳐 우수기관을 선정했다.

진안군은 자가조사 필지 수에 따른

업무담당자의 적정인원과 예산확보가 우수한 점, 지적도면 고도화를 위한 경계정비사업 추진, 세계측지계 변환을 위한 공통점 관측현황 등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기여하고 토지 행정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상담문의 민원봉사와 지적팀 ☎063-430-2261으로 하면 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진장소방서 차량용소화기 비치당부

무진장소방서(서장 김일선)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차량화재(1일 평균 14건)와 관련해 운전자들에게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작은 공간에서 발생하는 자동차 화재의 특성상 초기 진화에 실패하면 연료로 유류나 가스를 취급하고 각종 오일류 등을 취급하기 때문에 대형화재로 번질 수 있어 차량 내 소화기 비치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차량용소화기는 본체용기 상단에 자동차 겸용으로 표시된 것을 비치해야 한다. 차량에 배치해야 하는 소화기의 기준은 5인승 이상 승용차와 승합자동차는 0.7kg(1단위) 1개이며, 소형(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는 0.7kg(1단위) 2개 또는 1.5kg(2단위) 1개, 중형(16~35인승) 승합자동차는 1.5kg(2단위) 2개, 대형(36인승 이상) 승합자동차는 3.3kg(3단위) 1개 또는 1.5kg(2단위) 2개이며 모든 소화기의 내구연한은 10년이다.

김일선 서장은 "차량화재 발생 시 소화기를 사용하여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고 탑승자를 안전하게 구조하여, 차량이 전소되고 주변으로 화재가 확대되어 피해가 발생 되는 일이 없도록 차량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적정소화기를 꼭 비치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 일자리 사업 설명회 개최

무주군은 18일 전통문화의집 대강당에서 2019년 일자리사업 설명회 및 창업특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주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특강은 전주고용노동지청과 무주군이 주최하고 (사)캡티브중합기술원이 주관한 것으로, 주식회사 것들 옥치원 대표가 창업 성공사례와 노하우에 대한 내용을 강의했다.

무주군의 일자리 사업설명회와 창업컨설팅 및 홍보, 자격증 취득 선호분야 설문조사 등도 이어져 호응을 얻었다.

한편, 무주군은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에게 사업별 지원 내용과 신청절차 등을 일일이 안내하고 건의사항도 수렴해 눈길을 끌었다.

무주군청 산업경제과 노상은 일자리 팀장은 "일자리가 주민 삶의 질, 지역발전의 근간이 된다는 생각으로 마련한 자리였다"라며 "2019년도 일자리 창출에 24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양질의 일자리가 마련되고 또, 창업에 관해서도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